

전남

목포항 침수방지 가변 물막이 만든다

6년간 3858억 들여 폭 620m 높이 32m 신항~삼호읍 수직 리프트 게이트도 설치

목포항내에 접하는 수문 등 해일과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공 방재 구조물이 설치될 전망이다. 박지원 민수당(목포시) 의원은 "백중사리와 태풍대내습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입는 목포항 및 배후지역(유달동, 만호동, 동명동, 삼학동, 용당 1·2동 일대)의 침수방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시설을 국토해양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목포항 기후변화 대응시설(일명 '아라미르 프로젝트')로 향후 6년간 국비 3858억을 들여 고하도~유달동 사이 해저에 폭 620m·높이 32m의 '플랩형 게이트(수문)'와 목포신항~영암 삼호읍 사이 해상에 폭 240m의 '수직 리프트 게이트'(연결방파제 포함 400m)를 설치할 계획이다. 목포항대교(총사업비 3314억원)보다 사업비가 550억원 가량 많은 대형 국책사업이고, 평소에는 해저에 잠겨 있다가 유사시 공기를 주입해 해상으로 떠올라 태풍·해일을 막는 폭 600m의 플랩형 게이트는 목포의 랜드마크로 관광객자원화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번 사업이 완공되면 침수피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고, 3858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목포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와 협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가재정법상 '재해방지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게 하고, 내년 정부예산안에 조사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진돗개 명견화 사업 박차

지역연고산업 선정 5월부터 2단계사업



진도군이 진돗개(천연기념물 제53호)의 세계 일류 상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돗개 명견화 사업은 지난 2008년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RIS)으로 선정된 이후 3년동안 1단계 사업을 완료했다. 진돗개 명견화 사업은 진돗개를 단순한 보존 차원을 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세계 일류 상품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와 마케팅 전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1단계 사업을 통해 진돗개 발전 방안 공감대 형성·전문 인력양성·사육 환경개선·지정명품 사업을

통한 AS망 구축 등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핸들러·브리더 교육·심사원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진돗개 전문가를 양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2단계 사업과 함께 지식경제부 지침으로 법인으로 전환, (주)진돗개 명견화 사업단(대표이사 박병학)으로 변경하고 최근 개소식을 가졌다. 진돗개 명견화 사업은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주)진돗개 명견화 사업단이 공동 주관하게 되며 마을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사료 생산업체인 동아원(주)과 진돗개 전용 사료를 공동으로 런칭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금을 통해 사업단의 자립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사업을 활용한 진돗개 홍보와 수익사업도 병행하기 위해 BJ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아동 교육용과 단막극을 제작, 선보일 예정이다. (주)진돗개 명견화사업단 박병학 대표는 "진도군 현실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명품 진돗개를 생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목포 병원들 의료서비스 좋아졌네

한국병원 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목포 의료원 최우수기관에 선정

목포 한국병원과 목포시 의료원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최근 잇따라 좋은 평가를 받았다. 목포 한국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의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관리에서 최상의 수준임을 인정받아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정부가 직접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병원들의 의료서비스를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로 환자 및 직원의 안전보장,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환자 진료체계, 행정관리체계, 성과관리 체계 등 408개 조사항목에 걸쳐 실시됐다. 또 목포 한국병원원은 이번 인증획득으로 오는 2015년 9월까지 4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다른 의료기관들과 차별성을 가지게 됐으며, 공공보건 의료사업 참가시 각종 행정·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한국복지시설 취약계층 무료진료 1180명 ▲니어촌 무료의료봉사 14회 700명 ▲주민 보건교육 4회 222명 등 '찾아가서 봉사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앞서 목포시 의료원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 전국 326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비 81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전남농기원 5개업체에 농식품 가공기술 13건 이전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연구개발한 농식품 가공 기술을 산업체에 적극 이전하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농기원 상형실에서 농산물, 백년지기 영농조합법인, 옥담골다원, (주)자연과미래, 진도만복상향버섯 등 도내 5개 가공농가 및 산업체와 농식품 가공기술 및 신제품을 산업체 업무 협약식

죽림욕 즐기며 건강 다지세요

담양군 21일 죽녹원 건강걷기대회

죽림욕장으로 널리 알려진 담양 죽녹원에서 걷기대회가 열렸다. 담양군은 오는 21일 죽녹원에서 주민과 학생, 공직자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한다. '몸과 마음을 열어주는 죽녹원 산소길 걷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걷기행사는 죽녹원과 죽향 문화체험마을 등지에서 죽림욕을 즐기며 건강을 다질 예정이다. 건강걷기 동참을 희망할 경우 행사 당일인 21일 오전 10시까지 걷기운동발대식이 열리는 담양 종합체육관 광장으로 오면 된다. /송기동기자 song@



무럭무럭 자라거라. 지난 13일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 들녘에서 주민들이 월동배추를 심는다.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월동배추는 겨울철(12~2월)에도 얼지 않고 배추 맛이 그대로 남아 있어 싱싱한 김치를 담을 수 있다. (강진군 제공)

범죄·재해 예방 한곳서 전국 첫 통합 관제센터

장성군 12월까지 구축

장성군이 전국 최초로 CCTV 통합 관제센터와 재난 종합상황실을 하나로 합친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한다. 14일 장성군에 따르면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국비와 지방비 16억원을 투입, 군청내에 통합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할당간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통합 관제센터는 군 4개 부서와 26개 초·중·고교에 설치돼 방범, 재난·재해감시, 학교주변·학교내 어린이 보호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300여 대의 CCTV를 한곳에서 관제한다. 관내 업무별·용도별로 설치돼 있는 모든 CCTV를 야간 또는 비상시에는 방범용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경찰서와 전문 관제인력이 24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위 상승 등 위험요소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상황이 전파되고, 센터에서는 실시간 현장상황을 확인해 경보발령, 주민대피, 응급복구 등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상황 관제가 가능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CCTV 통합 관제센터와 재난 상황실을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통합하고 초·중·고교 CCTV까지 연계하는 최초 모델로서 전국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Real estate advertisements including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대인동심일부동산', '신진공인중개사', '토지매매', '공동중개환영', and '길잡이공인중개사'.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featur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contact information.